

제주여신신화에 투영된 여성들의 통합적 사유구조에 관한 연구

김 영 주

(대진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주저자)

이 석 주

(동국대 다름아카데미 교수, 교신저자)

- I. 들어가며
- II. <삼승할망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
여신신화의 구조
- III. 변형원리 속에 투영된 충족과 화해
의 상생적 사유구조
- IV. 성 역할의 주체적 수용과 자아실현
- V. 마무리하며

<논문 요약>

제주도는 비와 바람 그리고 척박한 토양에서 비롯된 불리한 생활환경과 절해고도가 지니는 폐쇄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한반도와 다른 이질적인 삶의 형태로 인해 주목받아 온 지역이다. 제주도가 지니는 자연환경은 제주만의 신화와 신앙을 만들었으며, 이들 신화는 공동체의 삶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현재까지도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제주도는 일만 팔천의 신들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신화의 섬’이며, 제주신화가 책 속에 갇혀서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신화가 아니라 현재로의 전승을 통해 현재를 살아 숨쉬는 신화라는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주여신신화를 배경으로 한 제주여성들의 일상적 삶이 ‘신화적 삶’에 가까웠으리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신화의 가치가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제주여신신화는 시련 극복을 위한 지성과 감성이 잘 조화되어 있는 최고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 여성상이 인내, 희생, 수동성, 기다림 등의 용어로 설명이 될 때, 제주신화속의 여신들은 삶의 주체로서 삶에 대한 긍정적 시선과 자신감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삶에 대한 열정으로 지난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 설명이 된다.

제주여신신화는 더 이상 고리타분한 옛날이야기가 아니며, 신화 속 여신들이 지녔던 통합적 사유구조가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배려와 관심, 경청 등의 감성적 측면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제주여신신화에 등장하는 포용과 화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여신의 모습 속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신이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임하는 여성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여성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주제어: 제주여신신화, 삼승할망본풀이, 가문장아기, 자청비, 화해, 상생.

I. 들어가며

우주의 형성과 세계의 기원문제에서부터 삶과 죽음을 통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 문제와 회복, 풍요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은 신화의 주제가 된다. 제주신화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제주도민의 생활양식의 일부가 되어 제주문화의 저변을 일구어 왔으며, 제주도민의 생활 속에 흡수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신화적 삶’이란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신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의 본질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신화적 삶을 살피고자 한다면 신화적 요소가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저로 하는 본 연구는 ‘제주여신신화’라는 기억공간을 통해 나타나는 신화적 요소와 여신들의 사유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주도는 일찍부터 한반도와 다른 이질적인 삶의 형태로 인해 주목받아 온 지역으로서 다양한 신화가 공동체의 삶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로 인해 풍요로운 신화자료가 현재까지도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특징은 제주여신신화를 배경으로 한 제주여성들의 일상적 삶이 ‘신화적 삶’에 가까웠으리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신화적 삶’의 양상을 논의함에 있어 제주여신신화에 투영된 여성들의 통합적 사유구조와 자아실현의 실천적 기제와 관련된 요소는 적합한 연구대상이라고 본다.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신신화라는 현상적 측면에 집중하여 다양한 본풀이의 분석을 통한 여성의 성 역할 구조와 성 역할에 따른 지배구조를 드러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¹⁾

1) 권복순,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51집, 배달말학회, 2012; 권복순, 「자청비의 세계구조와 양면성 고찰」, 『실천민속학연구』 제16호, 실천민속학회, 2010;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溯上古典研究』 제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김병주, 「여성신화<세경본풀이>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

물론 여신신화를 통해 성 역할 구조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이에 따른 문제와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의미론적 연구가 있었지만 이 또한 여성의 능력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 젠더의 내면화 논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제주여신신화의 특성을 한계 짓는 것이다.

제주여신신화는 지능(지성)과 감각(감성)이 적절하게 융합되어 있는 최고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신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지향하는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에서 겪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여신신화는 더 이상 고리타분한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여성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갈 것이다. 신화 속 여신들이 지녔던 통합적 사유구조를 통해 인간에 대한 배려와 관심, 경청 등의 감성적 측면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인성함양으로도 이어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여신신화에 투영된 여성들의 통합적 사유구조’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제주여신신화에 등장하는 여성과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을 관통하는 여성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학회지: 여성』 15권 4호, 한국심리학회, 2010; 이수자, 「무속신화<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 『이화어문논집』 14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6; 이유경,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의미」, 『한국어와 문화』 제6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9;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차옥승, 「제주도 신화와 제주도 여성의 정체성」, 『종교연구』 제49집, 한국종교학회, 2007; 하경숙, 「<가본장아기>에 구현된 여성인물의 형상과 특징」, 『溫知論叢』 第48輯, 溫知學會, 2016; 한창훈,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제주도연구』 제15집, 제주도 연구회, 1998;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1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황명숙, 「무가 “삼공본풀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29권2호, 한국분석심리학회, 2014.

이는 신화속의 여신과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과의 유기적 관계맺음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여성상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성과 감성이 인간을 구성하는 두 축이라고 한다면, 현대사회에서 부각되는 감각지향적 여성상은 한 쪽이 ‘결여’된 여성상이며, 대중매체를 통해 걸리지 않은 내용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능(지성)과 감각(감성)의 융합은 현대적 여성상이 추구해야 하는 화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삼승할망본풀이>에 투영된 제주여신신화의 구조를 분석함을 통해서 기억의 공간에서 전승되는 신화적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신화적 요소가 여성의 삶에 연결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화적 삶이라는 것이 어떤 양상과 특성을 지니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여와 대립의 사유구조가 충족과 화해의 사유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통해 여신신화에 투영된 통합적 사유구조가 상생을 지향함하고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동시에 상생을 지향하는 통합적 사유구조가 중국에는 ‘지혜와 감성’을 겸비한 여성의 자아실현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삼승할망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여신 신화의 구조

제주 신화를 이해하는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단일 텍스트를 넘어 여러 텍스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구조를 밝히고 기본 구조가 텍스트마다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가를 분석하는 일일 것이다.

한국의 신화에 여신과 관련된 서사가 풍부하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특히 ‘제주신화’는 여신신화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풍부한 여신의 이야기들이 전승되고 있다. 때문에 여신의 서사가 지니는 의미를 탐색하

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제주신화의 연구사와 본풀이들을 분석해보면, 여신 신화를 관통하는 서사 구조의 형성 원리 즉, 여신신화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전의 연구에서 구조적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신화를 분석함에 있어 구조논리를 적용하면서 한국 신화의 구조와 관련한 분석들이 이루어져 왔고, 제주신화의 구조분석과 관련해서는 현용준의 선구적 업적이 있다. 현용준은 <친치왕본풀이>에서 ‘친-남-부’와 ‘지-여-모’의 쌍분적 체계를 시작으로 ‘친-저승-신계’, ‘지-이승-인간계’ 그리고 ‘형-선-질서’와 ‘동생-악-무질서’라는 쌍분적 세계구조를 발견하고,²⁾ 이를 “먼저 남녀라는 이성의 결합에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형제라는 동성동혈에 의해서 이를 극복하려 했으나 결국 인간이 가진 문화 때문에 다시 실패한다는 것으로, 인문질서의 혼란은 운명적인 모순임을 시인하는 것”³⁾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그는 <삼승할망본풀이>에 대해서 “이 신화의 표면적인 의미 전달은 유명(幽明) 양계(兩界)의 신이 꽃가꾸기 경쟁으로써 생사의 직능을 관장한다는 정도에 그쳐져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생-현세-육(陸)-승리-번영, 사-피세(彼世)-해(海)-패배-소멸이라는 이항대립의 구조논리가 있고, 자연의 매개가 양영역의 융화에 실패하고, 결국 문화에 의해서 현세의 생이 번영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⁴⁾이라고 분석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구조분석은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런 심층의 대립이 제주신화라는 신화 집단 내부에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변형되고 있는지, 그 변형의 다발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으로 심화될 필요가 있었지만 선구적 문제의식은 계승되고 심화되지 못했다.⁵⁾

주지하듯이 한 신화 집단에서 형성, 전승되는 신화는 어떤 구조적 원

2)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서울, 1992, 324-328쪽 참조.

3) 위의 책, 329쪽.

4) 위의 책, 334-335쪽.

5) 조현설,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제주도연구』, 제36집, 제주학회, 2011, 87쪽.

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변형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변형의 원리 내지 규칙을 발견하면 신화 집단의 정신적 근거에 다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여신신화’를 관통하고 있는 서사의 구조와 변형의 원리를 밝히는 작업은 여신신화에 투영된 여성들의 통합적 사유 기능과 자아실현의 실천적 기제를 밝히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제주여신신화’를 관통하고 있는 서사의 구조와 변형의 원리를 밝히기 위해 제주신화에서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일반신본풀이를 분석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형이 이루어지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전제된다. 이 과정에서 변형이 진행되는 기본 원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신의 서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으며, 더불어 변형의 원리가 현실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승할망본풀이>를 준거로 삼아 여신신화의 구조를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풀이는 제주지역에서 불리는 서사 무가를 일컫는 말이다. ‘본’은 근본을 뜻하는 것으로 본풀이는 ‘근본을 풀어내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상적 인물이 ‘신’이 되어 좌정하고, 신성을 획득하고 신이 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신화적 서사체라는 점에서 본풀이는 ‘신의 근본을 풀어내는 서사’로 정의해 볼 수 있다. 본풀이는 삶을 살아내는 지난한 여정을 겪은 이야기체이기도 하다. 본풀이 속 인물들이 겪는 역경들은 삶을 살아내는 다양한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의 ‘삼승할망’은 ‘아기를 잉태시키는 여신’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⁶⁾ <삼승할망본풀이>는 구삼승과 신삼승,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맹진국따님애기라는 인물의 대립항이 설정되어 있다. <삼승할망본풀이>는 동해용왕 아버지와 서행용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동해용왕따님 애기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삼승할망본풀이>의 시간순서에 따른 서사단락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6)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파주, 2005, 57쪽.

1. 동해용왕따님애기는 동해용궁 아버지와 서해용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한두 살에 아버지 삼각수를 뽑고, 아버님 담배 껍데, 어머님 젓가슴을 잡아뜯는 등 불효하기 짝이 없다.
2. 열다섯이 되자 불효한 죄로 용궁에서 쫓겨나며, 인간 세상에 나아가 생불왕(아기 산육신)이 되도록 마련되어 무쇠석갑 속에 넣어져 바다에 버려진다.
3. 임박사에 의해 석함에 발견되고 구출된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오십이 넘도록 자식이 없던 그 부부에게 생불(아기)을 준다.
4.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출산법을 몰라 임박사 부인이 열 두 달이 넘도록 해복하지 못하고 죽어가자 임박사가 원통하여 요령과 금바라를 울려 하늘에 상소한다.
5. 하늘신이 이 사연을 알고 생불왕으로 들어 설만한 존재를 인간세상이나 저승에서 찾아 올리라 하자 맹진국따님애기가 추천되어 하늘에 올라간다.
6. 옥황상제로부터 시험을 통과하여 생불왕이 된 맹진국따님애기는 생불 주는 법과 해복시키는 법을 전수받아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물가에서 울고 있는 동해용왕따님애기와 조우한다.
7. 서로 생불왕이라고 주장하던 두 여신은 옥황상제의 뜻을 묻고자 하늘에 오르게 되며, 이에 옥황상제는 꽃피우기 시험을 통해 생불왕을 가리켰다고 결정한다.
8. 맹진국따님애기는 번성 꽃을 피워 생불왕이 되고, 시든 꽃을 피운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아이들의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는 저승할망이 된다.
9. 생불왕이 된 맹진국따님애기는 하늘에서 꽃씨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와 서천꽃밭을 만들게 되며, 환생꽃과 번성꽃을 따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의 점지와 잉태를 담당한다.⁷⁾

아버지 동해용궁과 어머니 서해용궁 사이에서 태어난 동해용왕따님애기는 15세에 불효한 죄 즉, 아버지 수염을 뽑고, 담뱃대를 꺾고, 어머니의 젓가슴을 잡아 뜯은 죄로 용궁에서 쫓겨나서 무쇠석갑에 갇혀 바다에 버려진다.

이와 달리 아버지 석가여래와 어머니 석가모니 사이에서 태어난 맹진국따님애기는 ‘부모에 효도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게 하며 깊은 물에 다리

7)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96, 24-35 쪽 참조.

놓아 월천(越川) 공덕 쌓고 한쪽 손에 번성꽃을 그리고 다른 손엔 환생꽃을 든' 애기씨가 된다. 그래서 맹진국따님애기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는 노각성자부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용왕-석가, 불효녀-효녀, 쫓아내기-불러올리기, 바다-하늘, 무쇠석갑-노각성자부줄 등 다양한 상징을 지닌 의미 향들을 대립의 속성으로 제시하며,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맹진국따님애기를 맞게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연쇄적으로 등장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 근본적으로 '결여'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다.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인간 세상에 가서 생불왕(삼승할망)이 되라는 신직을 받기는 하지만 임신법은 들었으나 출산법은 모르는 불구의 삼승할망이 된다. 이 문제를 결여가 없는 맹진국따님애기를 호출하는 것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맹진국따님애기는 옥황상제로부터 임신법과 해산법을 전수받고 온전한 생불왕이 되어 초파일에 인간 세상에 강림한다. 동해용궁과 하늘옥황, 해출(海出)과 천강(天降), 결여와 충족 등의 의미의 대립이 여기서 뒷보태진다.

인세에 출현한 두 명의 생불왕은 결국 '꽃피우기 시험'을 통해 진정한 생불왕을 가리게 된다. 신화적 사고체계에서 생명탄생을 관장하는 신은 꽃을 번성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맹진국따님애기는 수 만 가지의 꽃이 뿌리 하나에서도 피어난다. 하지만 동해용궁따님애기는 뿌리 하나, 가지 하나, 송이 하나뿐이고, 그것도 곧 시들어 버린다. 꽃을 피우는 능력과 그렇지 못한 능력의 대립을 통해 충족과 결여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항대립의 논리는 신화에 반드시 등장하는 원리이지만 제주여신신화는 대립을 넘어서는 화해의 지점을 지향하고 있다.

갈등이 고조되는 지점에서 생불할망인 맹진국따님애기의 '좋은 마음을 먹자'는 권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한을 품는 한, 그리고 대결의 마음을 가지는 한 대결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마음을 정리

하지 않는 한 대결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화해에 대한 지향이 ‘좋은 마음먹기’로 집약된 것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의 이승과 저승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함께하며 화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시공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는 시공이다. 그리고 이 화해의 주체는 생불할망이다. 맹진국따님애기는 신직을 받으면서 저승할망과 제상(祭床)을 나누라는 명은 받지 않았다. 생불할망의 ‘좋은 마음먹기’는 능력을 지닌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 양보함으로써 화해를 이루려는 것으로 충족과 화해를 통해 상생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Ⅲ. 변형원리 속에 투영된 충족과 화해의 상생적 사유구조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맹진국따님애기를 통해 인물의 대립항을 설정하고 있는 <삼승할망본풀이>는 <마누라본풀이>로 변형이 일어난다. <마누라본풀이>의 서사단락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생불할망이 인간에게 생불을 주기 위해 서천강 다리를 지나던 중, 아이들에게 마마를 잃게 하기 위해 행차하던 대별상신과 만난다.
2. 생불할망은 대별상신에게 아이들의 얼굴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도록 부탁하지만, 대별상신은 남자의 행차길을 감히 여자가 방해한다고 화를 내며 아이들의 얼굴을 뒤웅박처럼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다.
3. 생불할망은 노하여 대별상신의 부인에게 생불을 주고 열두 달이 지나도록 행복시키지 않는다.
4. 대별상신은 행복하지 못해 죽어가는 부인이 생불할망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하자 하는 수 없이 생불할망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생불할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5. 대별상신은 머리 깎고 장삼을 입은 후, 송낙을 둘러쓰고 버선만 신은 채로 와서 땃돌아래 엎드리라는 생불할망의 요구에 응한다.
6. 생불할망은 대별상신에게 자기를 청하고 싶으면 물명주, 강명주로 서천강

에 다리를 놓으라 하고, 대별상신의 집으로 가서 대별상신 부인의 해복을 돕는다.⁸⁾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저승할망은 아이들에게 병을 주고, 생불할망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신으로 등장한다. 당시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된 것이 마마(천연두)였다. 마마는 마마신의 소행으로 인식되었는데, 할망본 계열에서의 마마신이 대별상신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대별상신 여신이 아니라 남신이라는 데 있다. 할망본 계열의 신화에서 등장하는 ‘저승할망-생불할망’이라는 신화적 대립상의 변형된 형태로서 저승할망의 자리를 대별상신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생불할망이 대별상 부인인 서신국마누라에게 태기를 주는데 반해, 대별상신은 생불할망의 자손에게 마마를 주면서 다툼이 발생하고 갈등은 고조된다. 여기서도 문제 해결은 생불할망이 주도한다. ‘자손들의 얼굴을 원래대로 해주면 며느리가 해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불할망의 제안을 서신국마누라님이 수용함으로써 ‘화해’로 마무리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삼공본풀이>이다. <삼공본풀이>는 전상신(前生神) ‘삼공’의 내력담이다. 전상이란 전생(前生)을 뜻하는 말로, 전생의 팔자나 업보를 의미하며 삼공신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나쁜 전상과 좋은 전상에 관여하고 있는 존재이다.⁹⁾ <삼공본풀이>는 제주의 큰 굿 열두거리 중에서 다섯 번째로 올리는 제의이다. <삼공본풀이>는 부녀 관계를 다룬 가족서사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윗마을 옷상실의 강이영성이서불과 아랫마을 제상실의 흥은소천궁에 궁전 공납두 거지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
2. 남의 품팔이를 하면서 사는 중에 은장아기, 못장아기, 가문장아기의 세 딸을 낳고 점차 부자가 된다.
3. 가문장아기가 15세가 되자 딸들을 불러 놓고 문답을 하는데, 누구 덕에 먹

8) 앞의 책, 36-39쪽 참조.

9)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1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31-32쪽.

고 사느냐는 물음에 자기 덕으로 먹고 산다고 대답한 가문장아가 불효하다 하여 쫓겨난다.

4. 쫓겨나는 가문장아기에게 거짓말을 한 언니들이 가문장아기의 주문으로 각각 청지네와 용달버섯으로 환생하고, 부모는 장님이 되어 거지가 된다.
5. 집을 떠난 가문장아기가 굴미굴산 작은 초막의 세 아들 중 막내 아들과 혼인한다.
6. 막내 아들이 마 파던 곳에 구경을 간 가문장아기는 그 곳에서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
7. 가문장아기가 부모 생각이 나서 거지 잔치를 벌여 부모를 찾고, 부모가 눈을 뜬다.¹⁰⁾

가문장아기는 강이영성이서불과 흥운소천궁예궁전궁납 사이의 막내 딸로서 부모에 의해 쫓겨남으로써 부모-자식 간의 대립이 형성된다. 본래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흥년이 들어 걸식하러 나왔다가 부부가 된 사이로써 셋째 딸 가문장아기가 태어나면서 발복(發福)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다. 그러나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는 부모의 질문에 ‘내 배꼽 아래 선그릇 덕에 먹고 입고 산다’고 대답함으로써 가문장아기는 쫓겨나게 된다.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는 타고난 복을 바탕으로 자기 삶의 주체로 서는 여성¹¹⁾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질문에 부모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된 것이다.

한편, 집을 쫓겨나는 과정에서 두 언니와의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두 언니와 동생의 대립을 낳는다. 가문장아기의 부제는 부모에게는 안맹(眼盲)을, 큰딸에게는 청지네, 작은딸에게는 용달버섯이라는 어둠을 만들어 내게 된다.¹²⁾ 무가의 마지막에 가문장아기가 본래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상신(前生神)임을 밝히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

10) 현용준, 현승환 역주, 앞의 책, 95-107쪽 참조.

11) 이유헌,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의미」, 『한국어와 문화』, 제6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9, 214쪽.

12) 황명숙, 「무가 “삼공본풀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29권2호, 한국분석심리학회, 2014, 150쪽 참조.

라는 질문은 가문장아가기 했어야 하는 질문이었다. 부모의 오해 또는 무지 때문에 대립의 구조가 된 것이다. 아무튼 가문장아기는 자신을 버린 부모를 맹인잔치를 통해 개명(開明)시킨다. 재결합과 화해의 신화소가 여기서도 발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세경본풀이>이다. <세경본풀이>는 제주 무가 중 가장 장편에 속하는 무가이다. <세경본풀이>는 농경과 목축의 기원신화라는 모티브에서 출발함으로써 농경신과 목축신의 내력을 풀어내고 있다. 여기에는 농경신과 오곡의 기원, 생산양식의 충돌과 조정, 젠더사이의 갈등과 화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의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학사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세경본풀이>의 시간순서에 따른 서사단락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부유하나 늙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하던 김진국 대감과 자치국 부인은 권제 삼문을 받으러 온 대사의 말을 듣고 동관음 상주사로 원불수륙제를 드린다.
2. 시주한 물건이 백 근이 못 차서 딸 자청비를 낳는다.
3. 열다섯 살이 된 자청비는 여종에게 손이 고운 이유를 묻고, 여종인 정술덕이 빨래를 하면 손이 고와진다고 하자 그 말에 속아 빨래를 하러 나간다.
4.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이 자청비를 보고 반하여 그녀에게 마실 물을 청한다.
5. 문도령을 보고 반한 자청비는 남장을 한 후에 자신이 자청비의 남동생인 것처럼 속여서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하러 떠난다.
6. 자청비는 3년 동안 문도령과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 공부하는데, 자청비가 글공부와 오줌갈기기 시험에서 문도령을 이긴다.
7. 하늘에서 장가들러 오라는 옥황의 편지를 받고 문도령이 떠나가게 되자, 자청비도 함께 집으로 돌아오다가 중도에서 목욕할 때 자신이 여자임을 밝힌다.
8. 문도령이 자청비의 집에서 인연을 맺은 후, 본메(信物)를 남기고 하늘로 돌아간다.
9. 자청비네 우마를 각각 아홉 마리 씩 잡아먹은 장수남은 자청비에게 혼이 날까봐 산에서 문도령이 선녀들과 노는 것을 보다가 우마를 잃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10. 문도령의 소식을 들은 자청비는 좋아하며 그를 용서하고 함께 산에 따라가나 그제서야 정수남이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고, 겁간하려는 정수남을 죽이게 된다.
11. 자청비는 일 잘하는 남종을 죽였다 해서 집에서 쫓겨난다.
12. 집을 나온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여러 가지 생명꽃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부엉새를 잡아주는 공을 세운 후, 그곳 꽃감관의 사위가 되는 데, 그곳에서 생명꽃을 얻어와 정수남을 살린다.
13. 환생꽃으로 정수남이를 살리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여자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고 해서 부모로부터 다시 내쫓김을 당한다.
14. 주무할망의 수양딸이 된 자청비는 하늘나라 문도령에게 줄 갈비단을 짜게 되고,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짜 넣어서 이것을 본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나, 문도령은 자청비를 만나지 못하고 도로 하늘로 올라간다.
15. 주무할망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중이 되었다가, 문도령이 내려 보낸 선녀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난다.
16. 문도령은 부모에게 자청비와 결혼할 것을 청하고, 자청비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후 마침내 문도령과 결혼한다.
17. 자청비는 전에 서천꽃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문도령을 그곳에 보내 보름씩만 사위노릇을 하게 하나, 문도령이 돌아오지 않자 그에게 편지를 써서 돌아오게 만든다.
18. 선비들의 모략으로 문도령이 죽게 되자,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가져다가 문도령을 살려낸다.
19. 하늘나라에 변란이 일어나자,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죽음의 꽃을 이용하여 자원하여 나아가 난을 진압한다.
20. 자청비는 난을 진압한 공로로 오곡씨를 얻어 문도령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
21. 굶어서 죽어가는 정수남을 만난 자청비는 그를 위해 밥을 준 늙은이의 발에는 풍년을 주고, 밥을 안 준 아홉 형제의 발에는 흉작을 준다. 그리고 정수남을 목축신으로 좌정시킨다.¹³⁾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인 자청비는 맹진국따님애기와 가문장아기

13) 현용준, 현승환 역주, 앞의 책, 197-245쪽 참조.

계열의 여신이다. 자청비를 둘러싼 대립은 문도령과 정수남으로 대표되는 여성과 남성의 대립과 부모로 대변되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대립으로 나눌 수 있다. 문도령은 하늘 옥황의 아들로 지상에 내려와 자청비와 글공부를 하다 인연을 맺게 되는 인물로 자청비와 문도령이 완전한 결합을 이루기까지 문도령의 죽음과 자청비에 의한 환생 등, 힘든 시련을 여러 차례 겪게 된다. 정수남은 하인으로 자청비를 끊임없이 겁탈하려하고 온갖 추행을 저지르다 자청비에게 죽임을 당하는 인물로 정수남 또한 자청비에 의해 환생을 한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정수남과 지속적인 대립의 관계에 있었지만 정수남과 문도령과의 지속적 대립관계를 화해의 상생관계로 이끈 인물이다. 정수남을 죽였지만 환생꽃으로 다시 살려낼 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바꿔 놓는다. 문도령은 자청비와 헤어져 있는 동안 두 번이나 그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짝 여자와의 사랑을 즐기지만, 그때마다 자청비가 당당하게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랑의 권리를 되찾는다.¹⁴⁾ 심지어 독살된 문도령을 다시 살려낸 인물 역시 자청비이다. 그럼에도 자청비를 무시하고 잊어버린 문도령을 기다리지 않고 하늘 옥황으로부터 옥곡의 종자를 받아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정수남을 데리고 세경 땅에 좌정한다.¹⁵⁾ 이러한 자청비의 주체적인 행위는 문도령을 반성하게 하였으며, 그를 세경신으로 좌정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맹진국따님애기와 생불할망 그리고 가문장아기 보다 적극적으로 화해를 구하는 자청비는 자신에게 닥친 수난을 슬기롭게 넘기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적대자를 복수가 아닌 포용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상의 여신신화에서 등장하는 여신들에게는 대립된 여러 현상들을 대립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를 화해를 통해 상생을 지향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여성과 여성의 대립에서 능력을 지닌 쪽이 그렇지 않

14) 양영수, 『세계 속의 제주신화』, 보고사, 서울, 2011, 32쪽.

15) 김병주, 「여성신화<세경본풀이>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권 4호, 한국심리학회, 2010, 565-566쪽.

은 쪽에 양보함으로써 화해가 이루게 된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대립 특히 아버지와 딸의 대립에서는 버려진 딸에 의해 화해가 성립된다. 또한 남녀가 대립할 경우에는 여성에 의해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화해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지향하는 화해의 방식은 힘에 의한 제압이 아니라 양보와 포용을 통한 화해라는 점이다. 이는 여성에게 내재되어 있는 지혜와 도덕성이 발현된 결과이다. 제주신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성과 감성의 두 측면이 두루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통해 결여와 대립의 모습을 충족과 화해의 상생의 모습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IV. 성 역할의 주체적 수용과 자아실현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화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신화 속의 인물이나 모티브가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을 살아감에 있어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가능하게 하며, 현대인에게 삶의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여신이 등장하는 서사무가는 출생, 성장과정에서의 시련, 결혼, 신으로의 좌정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통과의례나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제주는 ‘여다(女多)’의 섬으로 불린다. 이것은 실제 여성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성의 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생산활동에 적극적인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경제력을 획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여성의 지위가 높아짐은 제주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절해의 고도가 지니는 한계성과 비와 바람 그리고 척박한 토양 등 불리한 생활환경은 여성의 자립적 주체성을 요구하였다. 제주의 주된 농경형태인 밭농사는 여성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으며, 경제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잠수까지 하는 강한 여성상을 형성하였다. 제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우리나라 여성 평균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 여성들의 전통적인 노동 특성으로서 강인한 생활력과 가장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독립성, 가능한 한 노동을 쉬지 않으려는 근면성, 그리고 여성의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와 자연환경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⁶⁾ 이처럼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여성상은 제주여신신화에 투영된 여신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는 제주여신신화 속의 여성 주인공들이 지닌 능동성과 자발성 그리고 적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시련 극복의 의지와 함께 자신의 목표를 포용과 화해를 통해 상생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헤쳐나가는 여성 특유의 지혜와 도덕성이라는 내재적 자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정체성의 형성은 주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 요소이다. 이런 관점에서 맹진국따님 아기와 생불할망 그리고 가문장아기와 자청비가 스스로의 힘으로 형성해 가는 화해와 포용의 정체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모습은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가문장아기와 자청비는 한국 전통사회의 보편적 여성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가문장아기의 경우,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분명 시련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복을 타고난 여성’이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¹⁷⁾ 부모에게 의존하며 가문장아기를 힘들게 했던 두 언니들이 지내와 버섯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 주체적이지 못한 여성과 대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가문장아기가 일반 여성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보편적인 삶 속에서 발견되는 가문장아기의 특수성이다. 가문장아기는 전통시대 여성들이 대부분 가부장적인 관계에

16) 허정옥, 「제주도 여성의 경제활동 및 취업구조」, 『제주도연구』, 22집, 제주학회, 2002, 328쪽.

17) 이유경, 앞의 글, 215쪽.

서 소외되고 억눌렸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나 남편과의 사이에서 독립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곧 여성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의 주도권을 형성하고자 노력한 것이다.¹⁸⁾ 여성들의 평범한 삶의 수용 속에서 가문장아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보다 주체적일 수 있었다.

가문장아기는 이성적이며 자기표현의 의사가 확고하다. 가문장아기는 이전의 여성상에서 보여주었던 여성적 희생이나 인내의 모습을 요구하는 여성은 아니다. 오히려 주체적이며 자립적 존재로서 삶에 대한 자각을 이루는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숨기거나 감추려하지 않는다. 여성인 자신을 긍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대표적 여성상이다. 굴하지 않는 의지와 당당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적극적인 여성으로서 제주여신신화가 탄생시킨 운명의 여신인 것이다.

자청비는 성적으로 자유롭다. 전통사회에서 보기 드문 여성상이다. 여성은 남성의 성적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던 사회적 통념에서 탈피하여 생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성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청비가 지녔던 여성다운 요소들이 억울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동성에 의해 음흉한 여성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자청비의 매력은 남성들을 관능적으로 유혹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것으로도 묘사된다. 정수남을 죽인 행위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청비로 상징되는 여성적인 매력을 단순히 여성적인 매력에만 묶어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으로 승화시켜가는 원칙과 자기통제에 대한 책임감이다. 자청비는 이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영리한 여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주체성, 어떤 일에도 주눅 들지 않는 강인함,

18) 하경숙, 「<가문장아기>에 구현된 여성인물의 형상과 특질」, 『溫知論叢』, 第48輯, 溫知學會, 2016, 71쪽.

위기의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적극성 등은 전통사회의 일반 여성들이 지녔던 수동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삶에 대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체적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청비와 가문장아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여인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자신이 목적인 바를 끈기 있게 기다리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성취하는 적극적인 여성이다.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하며 억척스럽게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입체적 인물이다. 척박한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속에서 삶을 개척해 나간 제주여성들의 ‘지혜와 감성’을 통한 주체적 자아실현에 대한 의지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 여성의 연약함이나 수동성을 미덕으로 여기던 전통사회의 관습에 정면으로 맞서며 시련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며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모습을 자청비와 가문장아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V. 마무리하며

제주도는 ‘여다(女多)’의 섬으로 불린다. 이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생산 활동 등의 경제활동을 하였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여성들의 옥외활동은 집안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서 안방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정지(부역)가 전체면적의 1/4-1/2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적극적인 생산 활동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은 제주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신화소이다.

제주신화 속의 여신들은 삶의 주체로서 지니는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 시선 등을 통해 지난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 묘사된다. 여기서 부각가능한 제주의 여신들의 특징이 바로 ‘자립’이다. 천과 지, 남과 여, 부모와 자식,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등 서로 대응되는 요소들이 많은 제주신화 속에서 자립은 대립된 구조 속에서의 대결을

화해로 마무리 짓고 있다. 이를 통해 상생의 ‘공동체의식’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거지, 도둑, 대문이 없는 삼무(三無)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마을공동신앙, 가옥구조 등 오늘날 제주도민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은 서사적 존재로서 수많은 이야기의 영향 속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간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구전되는 이야기 속에는 선조들의 사상과 지혜가 담겨져 있으므로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신화는 제주인들의 지혜의 산물이다. 구전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삶의 현장에서는 읊어지며 신앙생활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신화는 인간의식에 하나의 원형(archetypus)으로서 작용한다.¹⁹⁾ 제주신화는 서구의 신화처럼 화려하지는 않다. 하지만 천지창조에서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풍요롭고 체계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신화는 아직도 제주여인들의 현실 인식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주여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여성상을 설명할 때 주로 등장하는 용어가 인내, 희생, 기다림, 수동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인내와 희생, 기다림 등이 잘못된 표현이 아님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상만이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상은 아니다. 한국의 여성상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열정으로 표현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여성상들이 존재한다. 남성의 힘을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일을 해결하며, 때로는 남성들보다 더 용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제주의 여성상이 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삼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 속의 가문장아기와 자청비는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재정립해가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의 정체성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여신신화에 등장하는 포용과 화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여신의

19) 장영란, 『신화속의 여성, 여성속의 신화』, 문예출판사, 서울, 2001, 337쪽.

모습 속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신이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임하는 여성상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여신신화는 제주여신과 현대여성의 유기적 관계맺음을 설명함으로써 전통과 현대를 관통하는 한국의 여성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의 여성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복순, 「<가문장아가>와 <자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51집, 배달말학회, 2012.
- 권복순, 「자칭비의 세계구조와 양면성 고찰」, 『실천민속학연구』 제16호, 실천민속학회, 2010.
-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涑上古典研究』 제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 김병주, 「여성신화<세경본풀이>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권 4호, 한국심리학회, 2010.
- 양영수, 『세계 속의 제주신화』, 보고사, 서울, 2011.
- 이수자, 「무속신화<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 『이화어문논집』 14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6.
- 이유경,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의미」, 『한국어와 문화』 제6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9.
- 장영란, 『신화속의 여성, 여성속의 신화』, 문예출판사, 서울, 2001.
-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 조현설,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제주도연구』 제36집, 제주학회, 2011.
-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 차옥송, 「제주도 신화와 제주도 여성의 정체성」, 『종교연구』 제49집, 한국종교학회, 2007.
- 하경숙, 「<가문장아가>에 구현된 여성인물의 형상과 특징」, 『溫知論叢』 第48輯, 溫知學會, 2016.
- 한창훈,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제주도연구』 제15집, 제주도 연구회, 1998.
- 황명숙, 「무가 “삼공본풀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29권2호, 한국분석심리학회, 2014.
- 허정옥, 「제주도 여성의 경제활동 및 취업구조」, 『제주도연구』, 22집, 제주학회, 2002.
-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1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파주, 2005.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서울, 1992.
-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Integrated Thinking Structure of Women Projected in Jeju Goddess Myth / Kim-yeong joo, Lee-seog ju

Jeju is a closed lonely island with a difficult living environment in rain, wind, and barren soil. It is an area tha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from the early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ther forms of life. The natural environment of Jeju Island created the myth and faith of Jeju. The myth of this plac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life of the community, and it has been handed down variously to this day. Jeju Island is a 'mythical island' where various stories related to 18,000 gods are transmitted. The myth of Jeju is not just a myth that exists only in the memory of the past. Rather, it represents a myth that is alive and breathing while passing on the present. This feature can be deduced from the background of the myth based on the god of women in Jeju that the daily life of women in Jeju is close to 'mythical life'.

Often, the value of myth is to present a milestone in one's life through overcoming the difficulties. However, the myth of female god in Jeju is the best text that harmonizes intelligence and sensitivity for overcoming the trials. Traditional Korean women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patience, sacrifice, passivity, and waiting. In the myth of Jeju, goddesses have positive thoughts and confidence about the life of assets as the subject of life. At the same time, it is explained as being living a hard life based on the active and active passion of life.

The myth of female god in Jeju is no longer an old story. As for the integrated thinking structure of mythical female god, contemporary women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two meanings. First, it is the function of the mechanism that increases the ability of emotional aspects such as consideration, interest, and listening to humans. Second, the myth of Jeju

women god shows the figure of female god centering on engagement and reconciliation. Here, this god is positive and positive, and she responds enthusiastically to all things in order to achieve her goals. Through these features, we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revisit the feminine image that fuses tradition and modernity.

Key words: Goddess Mythology, Samseunghalmangbonpuri, Gameunjang Baby, Jacheongbi, reconciliation, Mutual.

